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23일 개최된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이상일 회장, 정달홍 부 회장 및 강신구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최삼규 대 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 유관단체장과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수상자 여러분 각자가 한국 건설산업의 원동력이라는 자 긍심을 갖고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건설안전과 품 질향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앞으 로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지속 적으로 마련하고 건설기능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형렬 건설정

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땀흘려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정부는 숙련된 건설기능 인력의 양성이 건설 산업의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건설기능인 여러분의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다하고 있으며,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우리협회 이상일 회장은 기계설비부문 수상자들에게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기계설비 시공을 위해 더욱정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 중 우리협회 추천 참가자 중 배관 부문에 성광현[(주)삼보이엔지], 전광배[이공건설 (주)], 김학순[(주)삼보이엔지], 김태건[(주)대정설비]



입상자에게 시상하고 있는 이상일 회장

씨가 입상했으며, 전기용접 부문에 정낙성[(주)대정설비], 백선우[(주)삼보이엔지], 진현일[(주)리더스산업] 씨가 입상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 64명 전원에게는 상금 및 상패,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와 함께 국내외산업연수 등 특전이 주어지며,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전국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
배관	1위	성광현	(주)삼보이엔지
	2위	전광배	이공건설(주)
	3위	김학순	(주)삼보이엔지
		김태건	(주)대정설비
전기용접	1위	정낙성	(주)대정설비
	2위	백선우	(주)삼보이엔지
	3위	진현일	(주)리더스산업

기계설비분야 수상자 소감 한마디



이상일 회장(뒷줄 가운데), 정달홍 부회장(뒷줄 오른쪽), 강신구 상임부회장(뒷줄 왼쪽)과 기계설비부문 수상지들



배관부문 1위 / 성광현 (주)삼보이엔지

실력점검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엔지니어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28년 동안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내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고품질 시공의 노하우는 무엇보다도 도면을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타공정과 긴 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 내년에는 타종목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배관부문 2위 / 전광배 이공건설(주)

회사 동료의 소개로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알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제 실력을 점검해보기 위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익힌 기술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걸 숨기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적극 물어보고 또 확인하며 작업했던 것이 제 능력도 키우고 고품질 시공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배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배관부문 3위 / 김학순 (주)삼보이엔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밀하게 시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좋을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무 경력은 다른 수상자들에 비해 짧지만 그동안 부지런히 배우고 익힌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고 이번 수상을 통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한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계설비 업역에 속한 타종목에도 도전하여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전기용접 부문 1위 / 정낙성 (주)대정설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큰 상을 받게 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어 기쁩 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로 보상받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기본에 충실히 시공합니다. 정밀하게 시공하여 차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는 도면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현장에서 시공하며 이 부분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훌륭한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전기용접 부문 2위 / 백선우 (주)삼보이엔지

지난 30년 동안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근무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점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시공한다면 누구나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며, 앞으로 배관 분야에도 도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계설비 기능인이 되고 싶습니다.

LH, 행복주택에 무선기반 IoT 스마트홈 적용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도입하여 행복주택 에너지효율도 높일 계획



LH(사장 박상우)는 행복주택 거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선기반 IoT(사물인터넷)을 접목한 행복주택 스마트홈'을 서울공릉 행복주택에 시범 도입하고 고양장항지구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홈이 구축되면 기상알람에 맞춰 조명이 켜지고, 외출·귀가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가스· 조명이 조절되며,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황사 등 유해환경을 미리 알 려주게 된다.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IoT 스마트 허브와 서비스 기기들 간의 무선통신을 구성함으로써 유선통신 배선과 Wi—Fi 없이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적용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특히 LH는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G전자와 협력하여 비상발전기를 대체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도입할 예정이다. ESS 도입으로 에너지절감형 행복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발전기실설치비용이 절약되어 스마트홈 구축에 따른 전체건설원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주 입주자인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거주자 피드백 거쳐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스마트홈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무선 IoT를 기반하기 때문에 넓은 평형의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쿠웨이트 등 해외 신도시 주택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향후 K—Smart City 구축 기술로 기대될 전망이다. ◆